

로그인 회원가입 마이페이지 카트 주문/배송 고객센터

완두콩님의 블로그

http://blog.yes24.com/comebyhere

리스트 I RSS 블로그

■ 전체보기

고독으로부터 가치있는 삶으로 🍑 포토리뷰 | 기본 카테고리

(a) YES블로그 테마링 | 파워문화블로그 N | 리뷰 | 이벤트

태그 & 테마링 | 방명록 🔝 RSS 2,0

http://blog.yes24.com/document/11256552 복사 🕴 🤚

블로그형 🛊

2019-04-23 05:44

내블로그 | 랜덤블로그 | 즐겨찾는 친구목록



내 살의 쉰표 YES블로그

님의 블로그

● 프로필
목지
ஃ친구추가

4웍스타자수: 병677개 대급입니다비급: 사용이형

圓 전체보기

= 기본 카테고리 = 나의 리뷰

나의 리뷰 = 기본 카테고리

나의 메모

= 기본 카테고리

태그 내용이 없습니다

2019/04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월별보기



다녀간 블로거

- 꼼앵쩡쩡

" 🕝 큰산 eungjunzzang

> yongiiii - 00sw

나의 친구 迚 나의 친구들

최근 댓글

내용이 없습니다

새로운 글

포스트 | 리뷰 | 메모

- 롤프와 함께 떠나는 세..

- 이동기 영어 기적의 특 - 초야
- 나를 잃지 마, 어떤 순.
- * 선재군어 나침파 모의

▼ 대보기

오늘 9 | 전체 210 2007-01-19 개석





사실 나에게 있어서 철학은 어렵고 진입장벽이 높게만 보이는 분야이다. 따라서, 비록 이 책이 쇼펜하우가 직접 쓴 책은 아니지만 내가 잘 이해할 수 있을지 나의 것으로 소화해 낼 수 있을지에 대해 다소 걱정이 앞섰다. 이 책의 저 자인 중국의 심리학자인 예저우는 어려울 것만 같은 쇼펜하우어의 사상을 알기 쉽게 안내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인지 때로는 자기계발서적인 느낌을 살짝 포함하고 있다.

쇼펜하우어에 대해서는 아는게 많지 않다. 그가 비관론자이며 염세주의자 라는 정도... 그러한 사람을 왜 많은 사람 들이 인정하고 그로부터 지혜를 배우려 하는지 사실 이해하기 어려웠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가 불확실 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비록 비관적이며 염세적이지만 자기 주장이 확실한 그를 정신적으로 의지하게 된 것이 아닌가 하 는 생각도 든다. 적절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으나 마치 자석에 쇳가루들이 달라 붙는 것처럼.







진행중인 이벤트

서필단 무집

- 에어프라이어 마스터...
- 디스 이즈 뉴욕
- . 스무 살, 빨강머리...
- . 난민, 세 아이 이...
- 함부로 사랑을 말하..
- 꼬마 빵 레시피
- -음드 스쿨



설민석의 한국사 대모험 5



2019 에듀윌 한국전력공사



철학은 어떻게 삶의 무기가 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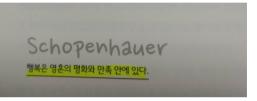
애드온 🕙

나의 분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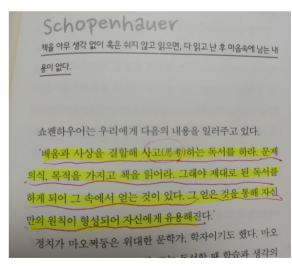
이벤트 세상

쇼펜하우어는 "평범한 사람은 시간을 어떻게 소모할지에 관심이 있지만, 재능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든 시간을 활용한 다 라고 말했다. 시간은 사람의 일생에서 가장 귀한 재화이며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져 있다. 그 시간을 잘 활용하면 부자나 사상가나 위대한 사람이 된다. 반면 같은 시간을 쓰고 도 누군가는 가난뱅이에 실패자, 술주정뱅이가 된다. 왜 사람 마다 다른 결과를 맺는 걸까?

이 책을 읽으면서 쇼펜하우어가 막연히 비관론적이며 염세적이지는 않다는 사실과 어찌보면 그의 철학이 고독으 로부터 가치있는 삶을 지향하고 Worst로부터 Best를 지향하는 철학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기에 그는 자신의 사상을 고수하면서 끊임없이 독서하며 내면을 성장시켜 나간 것이라고 생각하다 "평범한 사람은 시간을 어떻게 소모할지에 관심이 있지만, 재능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든 시간을 활용한다" 라는 그의 말이 바로 그의 삶을 잘 보여주는 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단순히 비관적이고 염세적이었다면 시간 활용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mark>"행복은 영혼의 평화와 만족 안에 있다</mark>"고 말하며 욕망에 끌려다니다 점점 삶의 자유를 잃어가는 모습을 경계하였 던 그의 삶을 보니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된다"는 성경의 말씀(디모데전서 6장 6절)이 떠올 라 그가 단순히 철학하는 자로서의 사유하는 삶이 아니라 내면의 완성을 위해부단히 애쓰고 노력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는 것 같다.



마지막으로, 쇼펜하우어 알려주는 것 중에 대해 매우 인상적인 것은 치열한 독서가의 삶이다. "배움과 사상을 결합 해 사고하는 독서를 하라. 문제의식, 목적을 가지고 책을 읽어라. 그래야 제대로 된 독서를 하게 되어 그 속에서 얻 는 것이 있다. 그 얻은 것을 통해 자신만의 원칙이 형성되어 자신에게 유용해진다." 이러한 독서의 자세는 나 또한 추구하는 바로서 앞으로의 나의 독서 또한 사고하는 독서, 문제의식과 목적을 가지고 책과 용감하게 대면하는 독 서를 하여 나의 사고를 내 삶을 변혁시켜 보리라 조용히 다짐을 해본다.

- 쇼펜하우어가 비관론적이며 염세주의에 머문 철학자가 아님을 알게 되어 감사합니다.
- 내면의 완성에 힘쓰는 것이 곧 행복한 삶으로 가는 길임을 깨닫게 되어 감사합니다.
- 독서를 함에 있어 문제의식과 목적을 가지고 내 삶을 변혁시키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 감사합니다.

이 글이 좋으셨다면 SNS로 함께 공감해주세요.

트윗

댓글(0) 트랙백(0) 이 리뷰를 ▼ | 추천 1